논리연구 22-2(2019) pp. 309-332

취소된 서술 행위와 표적 이동*

이 승 택

【국문요약】 강진호는 강진호(2017)에서 취소된 서술 행위 개념을 이용하여 프레게-기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크스의 시도를 설득력 있게 비판하였다. 행크스는 솜즈의 서술 행위 개념이 정합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그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행크스의 취소된 서술 행위 개념도 비정합성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강진호의 비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며, 행크스의 대응도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행크스는 강진호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행크스 이론에 담긴 개념적 자원을 이용하여 강진호의 비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행크스의 이론을 재구성한다. 특히, 취소 맥락에서 수행된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를 결여할지라도 그것이 속한 유형으로 표적 이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서술 행위는 해당 유형의 진리치로부터 합성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아이디어이다. 비록 행크스 자신이 취소된 서술 행위와 표적 이동에 관해 불명확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언급을 하지만, 그는 이를 통해 프레게-기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크스의 표기법이 지닌 문제도 드러날 것이다.

【주요어】 명제, 서술 행위, 프레게-기치 문제, 취소 맥락, 표적 이동, 유형-사례 구별

투고일: 2019. 5. 7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9. 6. 11 게재확정일: 2019. 6. 11
* 논문을 읽고 세심하게 논평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1. 행위 유형 명제 이론과 서술 행위의 본성

스콧 솜즈(Scott Soames)와 피터 행크스(Peter Hanks)는 전통적인 명제 이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명제 이론을 제시한다.[1] 전통적인 명제 이론에는 구조화된 명제 이론과 가능세계 명제 이론이 있다. 구조화된 명제 이론에 따르면, 명제는 세계의 존재자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구조화된 복합체이다. 가능세계 명제 이론에 따르면, 명제는 해당 명제가 참인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 전통적인 이론에서 명제는 사태를 일차적으로 표상하며 그에 따라 진리치를 일차적으로 담지한다. 문장, 믿음, 판단, 주장은 명제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용과 진리조건을 가진다. 그러나 이처럼 추상적인 존재자(구조화된 복합체, 가능세계들의 집합)로 이해된 명제가 어떻게 표상성과 진리조건을 가지는지를 전통적인 명제 이론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명제 이론가는 명제가 표상성과 진리조건의 일차적 담지자라는 사실을 원초적으로 받아들인다.[2]

솜즈와 행크스의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명제는 행위 유형이다. 우리가 문장을 사용하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판단과 주장을 할 때 내용과 진리조건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행위 유형을 사례화(tokening)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술문(declarative)의 경우, 이 '특정한 행위 유형'은 서술 행위 유형이다.[3] 대상에 속성을 서술할 때 우리는 대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특징짓고 그럼으로써 그 대상을 그

---

1) 필자는 강진호(2017)과 비슷하게 Soames (2015, 2019)과 Hanks (2015, 2019)에서 제시된 이론에 초점을 맞추겠다.

2) 전통 이론에 대한 솜즈와 행크스의 비판은 Soames (2014a)와 Hanks (2015)의 2장을 참고.

3) 행크스의 경우 프레게를 따라 서술문의 내용을 의문문 및 명령문의 내용과 구별하고 각각에 질문 행위 및 명령 행위를 대응시킨다. Hanks (2015), p. 19, pp. 25-26.

러한 방식으로 표상하여 진리치를 얻는다. 이 새로운 명제 이론에서 진리치의 일차적 담지자는 우리가 수행하는 서술 행위 사례이며, 행위 유형으로서 명제는 이 서술 행위 사례들로부터 추상되어 표상성과 진리치를 이차적·파생적으로 가진다.[4)]

그런데 솜즈와 행크스는 서술 행위의 본성에 관해 상반된 의견을 보인다. 솜즈는 서술 행위가 본성상 비주장적이며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행크스는 서술 행위가 본성상 주장적이며 비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행크스는 솜즈의 서술 개념이 명제의 표상성과 진리조건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설명 구조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비정합적이라고 비판한다(Hanks 2015, pp. 34-35). 어떤 행위가 진리-평가가능하다(truth-evaluable)는 사실은 바로 그 행위가 중립적(neutral)이라는 사실과 양립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솜즈의 중립적 서술 개념에 반대하는 행크스의 논증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했는데, 실제로 a는 F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중립성 반대 논증)
(1)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1)에 의해]
(3) S는 실수를 저질렀다. [(2)에 의해]
(4) S는 a가 F인지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음에 틀림없다. [(3)에 의해]
(5) S의 서술 행위는 중립적이지 않았다. [(4)에 의해]
(Hanks 2015, p. 37; 강진호 2017, p. 123)

이 논증은 ‘참(거짓)’, ‘옳음(옳지 않음)’, ‘실수’, ‘입장을 취함’, ‘비중립적임’이라는 개념 사이에 성립하는 자명한 연관성에 기초한다.

4) 새로운 이론과 전통적 이론 사이의 설명적 차이를 자세하게 비교한 논의로는 Caplan (2016)을 참고. 해당 논문에서 카플란은 새로운 이론에 불리한 결론을 내리지만, 필자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며 새로운 이론은 여전히 설명적 우위를 지닌다는 솜즈의 답변이 옳다고 생각한다. Soames (2016).

이때 ‘옳음(옳지 않음)’과 ‘실수’는 비규범적인, 다시 말해 기술적인(descriptive)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참(거짓)’은 기술적 개념인 반면 ‘옳음(옳지 않음)’과 ‘실수’는 규범적 개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1)에서 (2)나 (3)으로의 도출을 막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5)]

행크스의 반대 논증은 설득력 있다. 그런데 “행크스의 말처럼 명제가 이미 그 본성상 주장적 효력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떻게 삽입 맥락(embedding context) 하에서는 명제가 주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주장된 문장과 주장되지 않은 문장이 동일한 명제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행크스가 해결해야 할 프레게-기치 문제이다.”(강진호 2017, p. 117)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행위 유형 명제 이론에서 진리치의 일차적 담지자는 문장이 아니라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 사례(act token)라는 점이다.[6)] 문장 자체가 아니라 문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언어 행위 사례가 일차적으로 무언가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누군가가 ‘이 장미는 붉다’를 발화하여 특정한 장미에 붉음을 **언어적으로** 서술하는 경우, 그 언어적 서술 행위 사례는 (실제로 그 장미가 붉은지 여부에 따라) 진리치를 일차적으로 담지한다. 그렇지만 행위자는 마음속으로 그 장미를 다른 붉은 것들과 같은 그룹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으며, 그 장미를 직접 손으로 집어 붉은 것들이 모인 곳에 가져다 놓는 식으로 **행동을 통해** 서술할 수도 있다(Hanks 2015, pp. 64-65). ‘이 장미는 붉다’라는 문장 자체는 이러한 구체적 서술 행위들로부터 표상성과 진리조건을 파생적으로 가진다. 이것은 문장이 무언가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장에 해석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

5) 따라서 솜즈의 대응은 적절치 못하다. Soames (2015), pp. 222-224.

6) Hanks (2015), pp. 4-5. 곧이어 살펴볼 강진호의 ‘취소 반대 논증’에서는 진리치의 담지자가 문장이 아니라 행위 사례로 옳게 진술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삽입 맥락 하에서는 **명제**가 주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주장된 **문장**과 주장되지 않은 **문장**이 동일한 명제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을 행크스의 이론에 맞게 정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행크스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제기될 법한 형태(version)의 프레게-기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수정된 프레게-기치 문제) 어떻게 삽입 맥락에서 행위자의 서술 행위는 주장 효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행위자의 서술 행위는 정상 맥락[7]과 삽입 맥락에서 동일한 명제적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가?

행크스는 프레게-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소된 서술 행위’(cancelled predic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취소된 서술 행위란 “서술 행위의 일상적 요건(requirement)과 개입(committment)이 무효화되고 서술 행위가 판단이나 주장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맥락에서 발생한 서술 행위”이다. 이러한 맥락을 행크스는 ‘취소 맥락’(cancellation context)이라고 부르는데, “취소 맥락에서 행위자는 대상이 속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거나 주장하지 않으면서 대상에 속성을 서술할 수 있다.”(Hanks 2015, p. 90) 즉, 취소된 서술 행위는 취소 맥락 바깥에서 일어났더라면 가졌을 귀결을 가지지 않는 맥락에서 벌어진 서술 행위이다. 예컨대, 어떤 배우가 무대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대사를 발화하더라도 그 배우의 행위는 무대 연기에 관한 규약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대 밖에서 수행되었더라면 발현되었을 귀결들—늑대가 나타났다고 화자가 주장함, 늑대

---

7) 여기서 ‘정상 맥락’은 삽입 맥락이나 취소 맥락처럼 어떤 효과가 발현/취소되는 특수한 맥락이 아니라 취소 맥락의 바깥(out of cancellation context)을 의미하기 위해 필자가 편의상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상 맥락에서 일어난 서술 행위’는 취소 맥락 바깥에서 일어난 서술 행위를 의미한다.

가 나타났다고 청자가 믿음, 늑대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이 조치를 취함 등—을 지니지 않는다. 행크스는 이처럼 무대에서 연기하는 경우, 가설을 세우는 경우, 시나 소설을 쓰는 경우, 농담이나 반어법을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부정문, 선언문, 조건문의 삽입된 문장을 발화하는 경우에도 취소된 서술 행위가 일어난다고 말한다(Hanks 2015, p. 91). 주장 효력은 서술 행위의 정상적 귀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취소 맥락에서 일어난 서술 행위, 즉 취소된 서술 행위의 주장 효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상 맥락과 똑같은 서술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한 명제적 내용을 표현, 다시 말해 동일한 사태를 표상한다.

그러나 강진호는 삽입 맥락이 허구 맥락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며 행크스의 전략이 프레게-기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 “삽입 맥락에서 발화된 삽입된 문장들이 진리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조건문이나 선언문과 같은 복합문은 진리치를 갖고 있는데, 이른바 합성성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에 의해 복합문의 진리치는 삽입된 문장들의 진리치들로부터 합성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삽입된 문장들 또한 진리치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행크스가 진리-평가가능성 요구를 통해 취소 맥락에서의 발화가 단지 참이거나 거짓일 가능성만 있고 실제로 진리치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다. 취소 맥락 중 하나인 삽입 맥락에서 발화된 복합문이 실제로 참이거나 거짓이므로 그것의 진리치를 합성적으로 결정하는 삽입된 문장들 또한 실제로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진호 2017, pp. 120-121)

여기서 진리치의 일차적 담지자는 문장이 아니라 행위 사례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강진호가 주장하는 바는, 삽입된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자의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

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행크스 자신도 삽입 맥락에서 행위자의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를 가진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Hanks 2015, pp. 97-98). 하지만 그렇다면 행크스는 강진호의 취소 반대 논증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취소 맥락 C에서 주체 S가 대상 a에 속성 F를 서술했는데, 실제로 a는 F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취소 반대 논증)
(1*)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1*)에 의해]
(3*) 맥락 C에서 S는 실수를 저질렀다. [(2*)에 의해]
(4*)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는 입장을 취했음에 틀림없다. [(3*)에 의해]
(5*) 맥락 C에서 S는 a가 F라고 주장했음에 틀림없다. [(4*)에 의해]
(6*) 맥락 C에서 S의 주장 행위는 취소되지 않았다. [(5*)에 의해]
(강진호 2017, p. 125)

중립성 반대 논증과 마찬가지로, 취소 반대 논증에서도 '옳음(옳지 않음)'과 '실수'는 비규범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번에도 '참(거짓)'은 기술적 개념인 반면 '옳음(옳지 않음)'과 '실수'는 규범적 개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1*)에서 (2*)나 (3*)로의 도출을 막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행크스는 "우리는 누군가가 (참인) 선언문의 한 부분으로서 거짓인 선언지를 발화했다고 해서 그가 실수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Hanks 2015, p. 97)고 말함으로써 바로 이 같이 잘못된 대응을 한다.[8]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함으로써 (2*)에서 (3*)로의 추론을 거부하는 것도 시도해봄직한 전략이다.[9] 이 전략에 따르면, 취소 맥락에

[8] 행크스의 두 번째 대응은 솜즈와 달리 자신의 서술 행위 개념은 '순수한' 서술 행위—일상 맥락의 고립된(isolated) 서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합성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Hanks (2015), pp. 39-40. Hanks (2019), 2장 마지막 문단. 그러나 문제는 '취소된 서술 행위'가 비정합적이라는 것이지 서술 행위 자체가 비정합적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서 행위자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지만 **행위자** 자신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무대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대사를 발화하는 배우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보면,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대사를 발화함으로써 늑대에 나타남을 서술하는 배우의 **행위**는 옳지 않을지언정 배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우는 자신이 올바르지 않은 서술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의미에서 옳지 않은 행위를 수행한 행위자가 같은 의미에서 올바를 수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가령 누군가의 협박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규범적 의미에서) 비난 받지 않을지언정 여전히 (기술적 의미에서)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 살인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는지 여부나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사람이 (기술적 의미에서) 잘못했다는 점을 바꾸지 못한다.

이와 별개로, 행크스의 이론에서 표상성과 진리치, 주장 효력의 일차적 담지자는 행위자가 아니라 서술 **행위**이고, 강진호가 제시하는 반대 논증의 결론도 어차피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에 관여하기 때문에 비슷한 반대 논증이 다음처럼 재구성될 수 있다.

(취소 반대 논증: 행위 버전)
(1*)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다.
(2*)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 [(1*)에 의해]
(3**)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a를 F라고 잘못 표상했다. [(2*)에 의해]
(4**) 맥락 C에서 S의 서술 행위는 a를 F라고 주장했다. [(3**)에 의해]
(5**) 맥락 C에서 S의 주장 행위는 취소되지 않았다. [(4**)에 의해]

사실 행크스는 솜즈적인 서술 행위 개념의 비정합성을 비판하면서 이미 분명한 진단을 내렸다. "비정합성은 솜즈적인 서술 행위의 두 특징에서 비롯한다: 진리-평가가능성과 중립성."(Hanks 2015, p.

9) 필자와의 개인적인 교신에서 행크스가 실제로 제시한 전략이다.

36) 강진호의 취소 반대 논증은 정확히 이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진리치를 가지는 행위는 중립적일 수 없고, 중립적인 행위는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 취소 반대 논증의 교훈(그리고 행크스 자신도 이미 알았던 교훈)은, 서술 행위가 진리치와 주장 효력을 전부 가지거나 전부 가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가지면서 다른 하나는 가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행크스는 딜레마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 (행크스의 딜레마)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가 지닌 진리치와 주장 효력은 전부 취소되거나 전부 취소되지 않는다. 전부 취소된다면, 프레게-기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전부 취소되지 않는다면, 취소 맥락이란 없다.

다음 절에서 필자는 딜레마의 첫 번째 뿔이 거짓임을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해,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가 지닌 진리치와 주장 효력이 전부 취소되더라도 행크스는 프레게-기치 문제에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진호의 취소 반대 논증은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못하다.

2. 복합문과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

필자의 생각을 먼저 간략히 제시한 뒤에 자세한 논의로 넘어가겠다. 필자의 시도는 행위 **사례**와 행위 **유형**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취소 맥락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것은 행위 사례이다. 그리고 딜레마의 첫 번째 뿔을 받아들이면, 취소 맥락에서 행위 사례의 진리치와 주장 효력은 전부 취소된다. 프레게-기치 문제는 취소 맥락을 포함하는 복합문의 진리치와 관련하여 제기된다. 그런데 행크스에 따르면 복합문의 경우에는 두 번의 서술 행위가

수행된다. 특히, 두 번째 서술 행위는 앞서 수행된 첫 번째 행위 **사례**가 아니라 그 행위 사례가 속하는 행위 **유형**을 표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첫 번째 행위 사례의 진리치가 결여되더라도 그것이 속하는 행위 유형의 진리치에 의해 취소 맥락을 포함하는 복합문의 진리치가 합성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프레게-기치 문제는 해결된다.

지금부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우선 복합문에 관한 행크스의 설명을 살펴보아야 한다. 삽입된 문장을 정상 맥락에서 발화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행크스의 예를 따라, 오바마가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다'(It is true that Clinton is eloquent)라는 문장을 말함으로써 언어적 서술 행위 사례를 수행했다고 하자. 이때 오바마는 다음의 행위 유형을 사례화한다.

$$\vdash_{\uparrow} < \vdash\!<\textbf{Clinton}, \text{ELOQUENT}>, \text{TRUE}>$$

오바마가 사례화한 복합 행위 유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오바마는 클린턴이라는 대상을 지시하고(**Clinton**) 유창성이라는 속성을 표현한다(ELOQUENT). 그리고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한다($\vdash$). 여기까지 하면 오바마는 '$\vdash\!<$**Clinton**, ELOQUENT>'으로 기호화되는 서술 행위 유형의 사례를 수행한 것이다. 이제 그는 표적을 클린턴에서 유형 $\vdash\!<$**Clinton**, ELOQUENT>으로, 다시 말해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명제로 이동한다. 그런 다음 참임이라는 속성을 표현하고(TRUE),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명제에 그것을 서술한다($\vdash_{\uparrow}$). 이것이 서술 행위를 나타내는 턴스타일(turnstile) 기호에 화살표가 붙은 이유이다. 이 같은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target-shifted predication)는 서술 행위의 하위 유형(sub-type)으로서, "행위자가 지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행

위자가 수행하는 행위 유형[즉, 명제]을 표적으로 삼는 서술 행위이다."(Hanks 2015, p. 99)

그렇다면 이번에는 삽입문을 취소 맥락에서 발화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논의를 간소화하기 위해 부정문(negation)의 경우를 살펴보겠다.[10] 오바마가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It is not the case that Clinton is eloquent)라는 문장을 말함으로써 언어적 서술 행위 사례를 수행했다고 하자. 행크스에 따르면, 오바마는 다음의 행위 유형을 사례화한다.

$$\vdash_{\uparrow} <\sim \vdash\langle \textbf{Clinton}, \text{ELOQUENT}\rangle, \text{NOT-TRUE}\rangle$$

다시 한 번 오바마가 수행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번에도 오바마는 클린턴을 지시하고(**Clinton**) 유창성을 표현하며(ELOQUENT) 클린턴에 유창성을 서술했다($\vdash$). 그러나 앞의 경우와 달리, 오바마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삽입문을 취소 맥락에서 발화했다(~). 물결표는 부정 기호가 아니라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가 취소 맥락에서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안쪽 턴스타일에 있는 물결표에 주목하라. ['-는 것은 참이 아니

10) 곧이어 살펴보겠지만, 부정문의 경우에는 참이 아님이라는 속성을 명제에 서술하면 되지만, 연언문, 선언문, 조건문의 경우에는 특정한 관계를 명제들에 서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언문을 발화함으로써 수행하는 언어적 서술 행위 사례는, 두 명제가 전부 참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두 명제끼리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행위 유형(CONJ)을 포함할 것이며, 선언문을 발화함으로써 수행하는 언어적 서술 행위 사례는, 두 명제 가운데 하나 또는 나머지 하나가 참인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두 명제끼리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행위 유형(DISJ)을 포함할 것이다. Hanks (2015), pp. 105-106.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행크스의 언급은 Hanks (2015), p. 108.

> 다'(It is not the case that)라는] 부정(negation)은 취소 맥락을 산출한다.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라고 말할 때 분명 오바마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NOT-TRUE라는 표현 행위 유형은 참이 아님이라는 속성을 표현하는 행위 유형이다. 이 행위를 사례화하는 행위자는 참이 아님을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명제에 서술한다. 이 서술 행위는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이다.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를 말할 때 오바마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명제의 사례를 수행한다. 취소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는 오바마가 수행한 행위 유형 ⊢<Clinton, ELOQUENT>을 서술 행위의 표적으로 이용가능(available)하도록 만든다." (Hanks 2015, p. 100, 밑줄은 필자)

언어적 서술 행위 사례를 수행하는 화자인 오바마가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문장을 발화한 다음 '-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덧붙였을 때, 청자는 앞서 발화한 문장이 취소 맥락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영어에서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반대일 것이지만, 논리적 선후관계는 한국어와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자와 청자의 관심은 전부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즉,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명제—으로 옮겨간다. 방금 오바마가 수행한 **사례**가 속하는 **유형**이 새로운 서술 행위의 표적이 된다. 위 인용문에서 필자가 밑줄로 강조한 부분을 보면, 행크스는 오바마가 참이 아님이라는 속성을 서술하는 대상이 ~⊢<**Clinton**, ELOQUENT>가 아니라 ⊢<**Clinton**, ELOQUENT>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결표가 포함된 '~⊢<**Clinton**, ELOQUENT>'로 기호화되는 행위 유형은 취소 맥락에서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인 반면, 물결표가 없는 '⊢<**Clinton**, ELOQUENT>'로 기호화되는 행위 유형은 (그냥)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이다. 전자는 후자의 하위 유형이고, 후자는 전자의 상위 유형(super-type)이다. 오바마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에 참이 아님이라는 속성을 서술하는 행위 사례를 수행했다. 바깥쪽 턴스타일의 범위 안에 물결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두 번째 서술 행위의 표적이 ~⊢<**Clinton**, ELOQUENT>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표적은 ⊢<**Clinton**, ELOQUENT>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적을 이동한 뒤에 오바마가 수행한 서술 행위는 정상 맥락에서 벌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행크스의 표기법에서도 드러나듯, 결국 오바마는 $\vdash_{\uparrow}$ <~ ⊢<**Clinton**, ELOQUENT>, NOT-TRUE>라는 유형에 속하는 서술 행위 사례를 수행하였고, 이때 바깥쪽 턴스타일에는 물결표가 없다. 다시 말해, 오바마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문장은 주장하지 않았지만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주장했다. 두 번의 서술 행위 가운데 첫 번째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서술 행위는 취소 맥락에서, 두 번째 (<클린턴이 유창하다>에 참이 아님을 서술하는) 서술 행위는 정상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술 행위의 표적은 행위 유형, 즉 명제이므로 그 명제가 참인지 여부에 따라 오바마의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 사례의 진리치는 합성적으로 결정된다. 만일 <클린턴이 유창하다>가 참이라면 오바마의 서술 행위는 거짓이고, <클린턴이 유창하다>가 거짓이라면 오바마의 서술 행위는 참이다. 그러므로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와 주장 효력을 모두 가지지 않더라도, 복합문을 발화하는 서술 행위 사례의 진리치는 행위 유형의 진리치로부터 합성적으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프레게-기치 문제는 해결된다. 딜레마의 첫 번째 뿔은 거짓이다.[11]

---

11) 당연하게도 이 전략이 성공적이라면 행크스의 이론은 구제되는 반면, 솜즈는 여전히 중립성 반대 논증이라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다. 필자의 전략에 따르면 취소된 서술 행위는 진리치와 주장 효력이 전부 취소된 정합적인 개념인 반면, 솜즈의 서술 개념은 여전히 비정합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필자는 이 같은 해법에 제기될 법한 몇 가지 의문을 살펴보고 필자의 주장을 정당화하겠다.

3. 표적 이동과 유형-사례 구별

1) 표적 이동이란 무엇인가?

표적 이동이란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행크스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단지 표적 이동은 지시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행위자는 행위 사례를 수행함으로써 그 행위 사례가 속한 행위 유형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끔 만든다고 이야기할 뿐이다.[12]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표적 이동에 관해 여러 의문을 남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시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위 사례를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속한 행위 유형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의 행위 사례가 속하는 유형은 무수히 많을 텐데[13] 그 가운데 정확히 어떤 유형이 표적으로 삼아지는가? 화자와 청자는 표적 이동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표적 이동은 추상적 대상에 대한 지시나 양화를 함축하는가?

필자는 이 의문들이 흥미로우며 표적 이동이라는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서 탐구해볼 만하다고도 믿는다. 그럼에도 표적 이동을 정의내리거나 그 필요충분조건을 정식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

12) 표적 이동에 대한 행크스의 설명은 Hanks (2015)의 4.2절, 6.2절, 7.1절, Hanks (2019)의 4절을 참고.

13) 예를 들어, 수요일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행위 사례는 수요일에 커피를 마시는 행위 유형,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행위 유형, 수요일 아침에 무언가를 마시는 행위 유형, 커피를 마시는 행위 유형, 무언가를 마시는 행위 유형 등에 속한다.

이며 꼭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표적 이동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표적 이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를 처음 두는 사람에게 말을 움직이는 규칙을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장기판에 말을 전부 배치한 뒤에 그 사람에게 각각의 말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일러주거나 직접 말을 이동하며 보여줄 것이다. 마(**馬**)를 손으로 집어 대각선으로 이동시키거나 병(**兵**)을 한 칸 앞으로 이동시키는 식으로 말이다.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도 보여줄 텐데, 예를 들면 차(**車**)를 대각선으로 이동시키며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덧붙일 것이다. 이때 차를 대각선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하나의 행위 사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허용되지 않음 또는 금지됨이라는 속성을 서술하는 대상은 (특정한 그 행위 사례가 아니라) 차를 대각선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유형이다. 물론 청자는 이러한 설명을 오해하여 우리가 차를 대각선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유형이 아니라, 가령 차를 두 칸 이상 이동시키는 행위 유형으로 표적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오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표적 이동 개념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차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행위 사례를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속한 행위 유형을 표적으로 삼게 되는 과정을 정확히 기술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표적이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것이다.[14] 이 비유를 통해 표적 이동된 행위 유형이 반드시 지시되거나 양화되는 추상적 대상으로 상정될 필요가 없다는 점

14) 이 비유는 사실 취소 맥락을 포함하는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를 예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차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행위 사례는 시범(demonstration)이라는 취소 맥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의 정상적 귀결—턴(turn)을 상대편으로 넘기거나 규칙을 위반하였기에 불이익(penalty)을 받는 등의 귀결—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행위 사례가 속하는 행위 유형에 관한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는 정상 맥락에서 발생한다. 이는 행크스의 체스 사례를 응용한 것이다. Hanks (2015), p. 32, p. 94.

도 알 수 있다. 금지됨이 서술되는 표적 유형은 차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행위 사례와 유사한 행위 사례들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지만 유형을 추상적 대상으로 상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곧이어 살펴볼 유형에 대한 행크스의 견해와도 부합한다.

2) 어떻게 유형의 진리치는 취소되지 않는가?

두 번째 의문은 어떻게 취소 맥락에서 서술 행위 사례의 진리치가 취소되는데 그것이 속한 유형은 진리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형은 사례들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속하는 유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사례들이 이러저러한 속성들을 가지기 때문에 유형은 그 속성들을 물려받을(inherit)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행위 사례의 진리치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행위 유형으로 이해된 명제의 진리치는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가? 행위 유형으로서의 명제가 행위 사례들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자라면, 처음부터 추상적 대상으로서 원초적인 명제를 상정하는 전통적인 명제 이론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먼저 두 가지 물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위 유형은 행위 사례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가? 둘째, 행위 유형은 행위 사례들로부터 속성들을 물려받는가? 이에 대한 행크스의 대답은 각각 '아니오'와 '예'이다.[15] 행크스는 행위 유형의 존재론적 독립성을 설명하고자 아주 섬세하고 어려운 다이빙을 예로 든다(Hanks 2015, p. 27). 이러한 유형의 다이빙 행위는 극도로 섬세한 기술과 고강

15) 행위 유형 명제 이론가로서 솜즈도 사례를 가지지 않는 서술 행위 유형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서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인 대상과 속성이 지시된 적 있거나 다른 서술 행위를 구성한 적 있는 경우에만 사례 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Soames (2014b, c).

도의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껏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누구도 성취한 바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행위 유형이다. 그럼에도 이 다이빙 유형 자체는 마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다이빙 유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례를 가지지 않는 어떤 존재자를 지시하거나 양화한다. 두 명의 다이버가 이 다이빙은 특정한 높이와 각도에서 이러저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 때에만 실현될 것이라고 추론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관념(idea)이나 심상(mental image)에 관한 사실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행위 유형으로서의 명제도 행위 사례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은 존재한다.[16][17]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이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의 표상성과 진리치를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사례들이 없다면,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은 표상성과 진리치를 가지지 않는다. 행위 유형 명제 이론에서 표상성과 진리치의 일차적 담지자는 서술 행위

16) 이처럼 행위 유형으로서의 명제가 행위 사례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제가 공유가능(sharable)하고 반복가능(repeatable)하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설명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는 공유 가능하고, 한 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제는 반복 가능하다. Hanks (2015), p. 13, p. 20, p. 27.

17) 행위 유형 명제 이론가들이 전통적인 명제 이론을 거부하는 이유는 추상적 존재자로 상정된 대상들이 명제의 표상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추상적 존재자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다. 다시 말해, 명제가 플라톤주의(Platonism)적인 존재자라는 것은 행위 유형 명제 이론가들이 불만을 표하는 논제가 아니다. 오히려 각주 16)에서 이야기하였듯, 명제가 마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추상적 존재자가 아니라면 명제의 공유가능성과 반복가능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례이기 때문이다. 솜즈와 행크스 같은 행위 유형 명제 이론가들은 행위 유형이 원초적으로 표상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이론이 직면하는 설명적 난점—명제의 표상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에 똑같이 부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 유형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행위 유형이 행위 사례들로부터 속성들을 물려받는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지만, 후자의 사실은 따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형은 사례들로부터 속성을 물려받는다. 가령, 태극기의 사례들은 여러 물질적 속성들을 가진다. 그렇지만 태극기 유형도 물질적 속성을 가진다. 태극기 유형은 바탕이 희고 빨간색과 파란색, 검은색의 특정한 방식으로 배치된 문양을 가지고 있으며 관공서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깃대들에 매달려 있다. 최인훈의 소설 《광장》은 어떤가? 《광장》은 한국전쟁 이후 이념의 문제를 다루었다거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었다거나 읽을 때마다 슬프다고 말할 때 우리는 《광장》의 사례들뿐 아니라 《광장》 유형에 관해서도 참되게 말할 수 있다.[18] 그런데 어떻게 추상적 존재자인 유형이 이러한 물질적 속성들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딱히 신비스러운 점은 없다. 물질적 대상 유형은 이차적·파생적인 의미에서 물질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질적 속성의 일차적 담지자는 물질적 대상 사례들이다. 구체적인 태극기 사례들과 《광장》의 사례들이 물질적 속성들을 가지기 때문에 태극기 유형과 《광장》 유형도 그러한 물질적 속성들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유형은 사례들로부터 속성을 물려받는다.

더 나아가, 행크스는 유형에 관한 사실이 "반사실적으로 구성된다"(Hanks 2015, p. 74)고 말한다. 태극기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태극기의 유형은 특정한 색의 문양을 가질 수 있는데, 왜냐

18) 이는 행크스의 예시들을 변형한 것이다. Hanks (2015), p. 74.

하면 태극기 사례들이 있었더라면 그 태극기 사례들은 특정한 색의 문양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형의 현실적·가능적 사례들이 물질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에 호소함으로써 유형이 물질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한다.”(Hanks 2015, p. 75) 행크스는 이 논점들을 서술 행위 유형과 사례에 곧바로 적용한다.[19] 서술 행위 유형은 표상성과 진리치를 그것의 현실적·가능적 사례들로부터 물려받는다. 따라서 행크스에게 명제는 표상성과 진리치를 이차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존재자로서의 서술 행위 유형이다.

이제 필자는 행크스의 입장에서 어떻게 취소 맥락에서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사례의 진리치는 취소되는데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는 행위 유형은 진리치를 유지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유형 ⊢<**Clinton**, ELOQUENT>은 취소 맥락의 사례들도 가지지만 정상 맥락의 사례들—아마 취소 맥락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례들—도 가진다. 무대의 배우가 대사를 하거나 누군가 반어법을 위해, 또는 선언문이나 조건문에서 ‘클린턴은 유창하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례들이 취소 맥락 바깥에서 진리치와 주장 효력을 가진 채로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할 것이다. 그에 따라 오바마의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지닌 진리치는 취소되지만, 정상 맥락의 사례들로부터 진리치를 물려받은 ⊢<**Clinton**, ELOQUENT>에 관한 오바마의 표적 이동된 서술 행위 사례의 진리치는 여전히 합성적으로 결정된다. 취소 맥락의 서술 행위 사례는 ⊢<**Clinton**, ELOQUENT>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끔 ‘소환’해내는 역할을 할 뿐이다.

---

19) 물리적 속성은 그렇다 쳐도, 행위 사례들이 참/거짓과 같은 평가적 속성을 행위 유형에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문에 관해서는 Hanks (2015), pp. 75-76을 참고.

3) 유형의 주장 효력은 프레게-기치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가?

세 번째 의문은 유형의 주장 효력이 프레게-기치 문제를 여전히 야기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바로 앞의 3.2절에서 필자가 제시한 답변에 따르면, 유형은 진리치를 다른 많은 사례들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취소 맥락에서 수행된 사례의 진리치가 취소되더라도 유형은 진리치를 여전히 가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정확히 같은 이유에서 유형은 주장 효력을 다른 많은 사례들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취소 맥락에서 수행된 사례의 주장 효력이 취소되더라도 유형은 주장 효력을 여전히 가질 것이며, 이 점은 프레게-기치 문제를 다시 야기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행위자가 취소 맥락에서 특정 사례를 수행함으로써 소환해 낸 유형은 진리치와 주장 효력을 둘 다 지닐 것이다. 그러나 소환된 유형은 두 번째 서술 행위 사례의 표적으로 기능할 뿐, 그 자체가 행위자의 주장 행위와 관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행위자는 문제되는 명제를 이러저러하게 평가할 뿐, 그 자체를 주장하는 데 개입하지 않는다.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를 발화하는 오바마를 다시 떠올려보자. 오바마는 두 번의 서술 행위 사례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는 취소 맥락에서 두 번째는 정상 맥락에서 수행한다. 오바마가 첫 번째로 수행한 사례는 진리치와 주장 효력을 모두 가지지 않지만 그것이 속하는 유형, 즉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명제를 소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때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명제는 진리치와 주장 효력을 둘 다 지닌다. 하지만 이 명제의 주장 효력이 취소 맥락에서 오바마가 수행한 사례의 주장 효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만약 표적으로 삼아진 행위 유형이 오바마의 취소된 사례로부터 주장 효력을 물려받았더라면 프레게-기치 문제가 발생했겠지만, 오바마는 해당 유형을 두 번째

서술 행위의 표적으로 삼을 뿐이다. 직관적으로 말해서, 오바마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오바마는 그러한 주장을 먼저 취소 맥락에서 소환한다. 이 같은 과정에서 오바마는 클린턴이 유창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4) 취소 맥락의 사례는 진리치를 가지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필자가 다루어야 할 의문은 취소 맥락에서 일어난 서술 행위 사례가 정말 진리치를 가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까지 필자가 보인 것은 행크스가 할 수 있는 정합적인 대응이 있다는 것뿐, 그것이 참임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이 어디에서 비롯하였는지를 떠올려보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천이 있을 텐데, 하나는 삽입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허구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다. 삽입 맥락에서 비롯한 직관은 1절에서 강진호가 제기한 종류의 것이다. 즉, 복합문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술 행위는 진리치와 주장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복합문의 진리치가 합성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복합문에 삽입된 문장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술 행위도 진리치를 가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복합문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술 행위의 표적은 삽입된 문장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술 행위의 표적과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직관은 설명적으로 해소(explain away)될 수 있다. 특히, 부정문이나 선언문, 조건문의 삽입문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술 행위가 진리치를 가진다는 생각은 선이론적인(pre-theoretical) 직관이라기보다는 복합문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서술 행위가 진리함수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배경을 전제한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머지 직관들은 허구 맥락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가 정상 맥락에서 '클린턴은 유창하다'를 발화하는 경우와 무대에서 배우가 '클린턴은 유창하다'를 발화하는 경우에 둘 다 같은 문장을 발화하고 같은 서술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장 효력은 취소되더라도 진리치는 똑같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무대의 배우는 무언가를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대사를 발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반면, 그것의 진리치는 배우의 의도와 무관하게 세계의 상태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취소 맥락에서 취소된다고 여겨지는 주장 효력도 배우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배우가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를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속한 서술 행위 유형을 청중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술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입장을 취함, 중립적이지 않음, (기술적 의미에서) 실수할 수 있음과 연관되는 의미로 '주장 효력'을 사용했다. 주장 효력은 진리치와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의도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배우가 무대에서 주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장 효력은 취소된다.[20] 그리고 우리가 때로 배우의 발화 행위나 소설가가 소설 속 문장을 가지고 수행하는 서술 행위에 대해 참 또는 거짓을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평가의 표적은 그런 취소된 서술 행위 사례가 아니라 그것이 속한 서술 행위 유형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허구 맥락의 서술 행위가 정상 맥락의 서술 행위들에 의존한다는 직관도 있다. 평소 우리가 '클린턴이 유창하다'라는 문장을 사용하여 클린턴에게 유창성을 서술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배우가 겉보기에 똑같은 서술 행위를 수행할 때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진리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20) 행크스는 무대에서 배우가 "자신의 발화를 진정한 주장으로 간주되도록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Hanks 2015, p. 93)고 말한다.

취소 맥락의 사례가 유형을 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유형은 정상 맥락의 사례로부터 속성들을 물려받는다는 생각은 이러한 직관을 해명할 것이다. 끝으로, 행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의 새로운 명제 이론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무수한 난제들—프레게의 퍼즐, 크립키의 퍼즐, 태도 보고문(attitude report), 빈이름(empty name)의 문제, 존재 부정문(negative existential), 자신에 대한 믿음(*de se* belief)의 문제 등—을 해결한다면,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을 통해 우리는 이 같은 해명을 참이라고 생각할 좋은 이유를 가진다.

4. 결론

이상의 논의가 옳다면 강진호의 취소 반대 논증은 타당하지만 불건전하다. 행크스는 전제 (1*)를 거부하고도 프레게-기치 문제를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행크스는 취소 맥락의 서술 행위 사례가 진리치와 주장효력을 둘 다 가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행위 사례와 행위 유형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취소 맥락에서 수행된 행위 사례가 행위 유형으로의 표적 이동을 야기한다는 생각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몇 가지 의문과 반론을 제기하는데, 필자는 그것들이 행크스의 이론에서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논의했다. 결국 자신의 이론을 더욱 상세히 명시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한다면 행크스는 프레게-기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진호 (2017) “행위 유형 명제 이론과 서술 행위의 본성”, 『철학적 분석』 38호, pp. 109-129.

Caplan (2016) “Soames’s New Conception of Propositions”, *Philosophical Studies* 173, pp. 2533-2549.

Hanks, P. (2015) *Propositional Cont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anks, P. (2019) “On Cancellation”, *Synthese* 196, pp. 1385-1402.

King, J., Soames, S. & Speaks, J. (2014) *New Thinking about Proposi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oames, S. (2014a) “Why the Traditional Conceptions of Propositions Can’t be Correct”, King, J. *et al.* (2014), pp. 25-44.

Soames, S. (2014b) “Cognitive Propositions”, King, J. *et al.* (2014), pp. 91-124.

Soames, S. (2014c) “Clarifying and Improving the Cognitive Theory”, King, J. *et al* (2014), pp. 226-244.

Soames, S. (2015) *Rethinking Language, Mind, and Meaning*, Princeton: Princeton Univsersity Press.

Soames, S. (2016) “Yes, the Search for Explanation is All We Have” *Philosophical Studies* 173, pp. 2565-2573.

Soames, S. (2019) “Propositions as Cognitive Acts”, *Synthese* 196, pp. 1369-1383.

연세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Yonsei University
stan.taek.lee@gmail.com

Cancelled Predication and Target-Shifting

Seungtaek Lee

In Kang(2017), Jinho Kang persuasively criticized the attempt of Peter Hanks using his concept of cancelled predication to solve the Frege-Geach problem. According to Kang, Hanks had successfully shown the incoherence of Scott Soames's concept of neutral predication, but if it is true, then Hanks's concept of cancelled predication also falls into the same incoherence. I agree with Kang that Hanks faces the same incoherence, and I think that Hank's answers are unconvincing. As I see, however, it is possible for Hanks to overcome Kang's criticism. In this paper, I will reply to Kang's criticism by using conceptual resources in Hanks's own theory. In particular, the idea is that the final predication is compositionally explained by the type it belongs to without having truth-values because cancelled predication itself gives rise to target-shifting toward the type. By doing so, Hanks can successfully solve the Frege-Geach problem even though he let some remarks about cancelled predication unclear and confusing. In addition, it will be revealed that his notation is misleading as well.

Key Words: Propositions, Predication, the Frege-Geach Problem, Cancellation, Target-shifting, Type-Token Distinction